

제26회 수주문학상
수상자 시 해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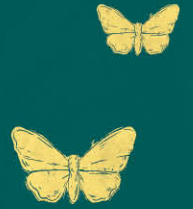
신들의 동물원



제26회 수주문학상
수상자 시 해설집

신들의 동물원

시인 유현성



제26회 수주문학상 수상자 시 해설집

신들의 동물원 유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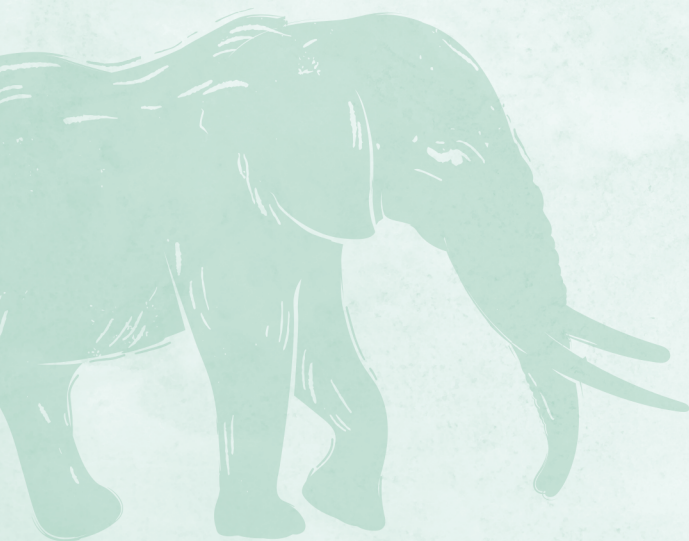
수주문학관



제26회 수주문학상
수상자 시 해설집

신들의 동물원

시인 유현성



동물원의 동물들이 우리를 관람하면서 지나갔다.
태초에 내가 있거나, 애초에 내가 있었을 텐데
나는 누가 만든 꿈인지 몰라도
내가 울지 않을 게 아니잖아.
동물들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놀고 있었다.
우리에 대한 안내판이 없었는데
우리는 어디론가 안내되고 있었다.

목 차

수주 변영로와 수주문학상	04
제26회 수주문학상 수상자 유현성	07
제26회 수주문학상 수상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강산에	08
취업전선	12
비 공장	14
맨발의 햄스터	17
Man to Man	19
허그 프리	22
별내	24
동거	26
돌아와요, 씯다르타	30
수상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심사평	32
수주문학관	46

- 본 해설집에는 '2024년 제26회 수주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유현성의 작품과 자작시 해설을 담았다.
- 수록된 시는 총 9편으로, 수상자가 제26회 수주문학상 응모 시 제출하였던 작품이다.
이 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가 수주문학상 수상작으로 당선되었다.
- 본 해설집에 실린 9편의 시는 월간 『현대시』 10월호(한국문연, 2024)에 수록된 작품과 동일하다.

수주 변영로와 수주문학상



수주 樹州 변영로 卞榮魯

수주 변영로(1898~1961)는 부천이 낳은 대표적 시인이자 한국 근대 문학을 개척한 선구적 문필가이다.

변영로는 1899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서 태어났으나 부천의 옛 지명인 수주 樹州를 호로 삼을 만큼 부천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서울의 재동·계동보통학교를 거쳐 1910년 사립 중앙학교에 입학했으나 체육 교사와의 마찰로 자퇴하고 만주 안동현을 유람하다가 이흥순과 결혼했다.

그는 1915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에 입학해 3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쳤다. 20대 때는 중앙고보 영어 교사와 이화여전 강사를 했다. 1918년 『청춘』지에 영시 「Cosmos(코스모스)」를 발표해 천재 시인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1920년에 『폐허』 동인이 되었고 다음 해에는 『장미촌』 발행에 참여했다. 1922년, 25세 때에는 『신생활』 4월호에 「달밤」과 「논개」를 발표했다. 27살인 1924년에는 첫 시집 『조선의 마음』을 간행하였다.

1931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대학에서 공부했다. 귀국 후 동아일보 사에 입사했으며 월간 『신가정』의 주간이 되었다. 광복 이듬해에는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1948년에는 영문 시집인 『Grove of Azalea』를 간행했으며 서울시문화상(문학 부문)을 수상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난 해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영어 교관으로 부임하기도 하였다.

1953년에 대한공론사 이사장에 취임하고 영문 일간지 『Korean Republic』을 주재·발간하였다. 같은 해에는 국제펜클럽 한국 본부 초대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변영로는 시 외에도 수필을 즐겨 썼다. 특히, 40년간 술에 취해서 살아 온 경험담을 풀어 놓은 『명정사십년』은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며 힘있는 필치로 연재 중 큰 인기를 끌었다.

수주는 1961년 3월 14일,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지병인 인후암으로 작고했다. 선산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번지 묘소에 묻혔다. 묘소 앞 시비에 「생시에 못 뵈을 임」이 새겨졌다.

조선의 명운이 기울어가던 시기에 태어난 수주 변영로의 생애는 국권 피탈,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전쟁과 민족 분단이라는 역사적 비극 앞에서도 오히려 꽃꽂한 인생관을 고수하고 이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수주의 문학 속에 투영된 시대의 아픔과 그의 울골은 민족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수주문학상

수주문학상은 경기도 부천시 고향이며 작고 후 고향인 부천시 고강동에
 묻힌 수주 변영로의 뛰어난 문학의 향기와 올곧은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천시에서 1999년 제정한 상으로, 서정성·순수성·민족성을
 지향하는 전국 공모 형식의 시·소 부문 문학상이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어 역대 수주문학상 수상자를 제외하고 신인이든
기성작가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장시長詩를 제외하고 7편~10편
의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예선에서부터 모든 응모자의 이름을 가리고 익명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5명의 심사위원의 평가와 합의에 의해 최종 당선작 1편이 최종 선정된다.

수주문학상은 1999년 첫 회에는 응모자가 90명도 채 되지 않았으나 꾸준히 응모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2024년 제26회 수주문학상에는 총 443명이 응모하였으며 접수된 작품은 총 3,526편에 이르는 공신력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수주문학상은 부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문학상으로는 드물게 전국 단위의 공모를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매년 우수하고 역량 있는 시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제26회 수주문학상 공모 포스터

제26회
수주문학상 수상자
유현성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지?
심지어 너의 파시즘에 시달릴 때도 말이야.”

유현성 시인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현대소설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22년 「스케치-기린의 생태계」로 현대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었으며, 2022~2023년에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을 수혜받았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사고와표현 글쓰기 연구원이자 문화예술 기업 크리에이시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수상자 필사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여기의 동물들은 거짓말을 사고 판다.
 훌륭한 거짓말은 세계에 신빙성을 더해줌으로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인 진실은 필요가 없다

인간의 경우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 드럼통을 도시에
 던지기도 한다. 드럼통이 터지면 생존한 단 한 마리의 쥐가
 배를 두드리며 노래한다. 강물에 몸을 던져 쓴 편지는 어디로
 흘러가나, 코끼리는 코가 손 아래, 과자를 꾸민 코코 버치로
 어린이들은 이 큰 따가 부른다, 목재라가 예선으로 발라기
 시작한다. 강물에 몸을 던져 쓴 편지를 읽는 것이 다.
 역사는 흐른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여기의 동물들은 거짓말을 사고 판다.
 훌륭한 거짓말은 세계에 신빙성을 더해줌으로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인 진실은 필요가 없다.

토끼의 경우

어렸을 적 불렀던 노래 가사가 금서에 일부라는 것을 토끼는 알고 있다. 생산라인 A동에서 머릿속으로 가사를 부르며 토끼는 유물들 위로 공업용 거짓말을 본다. 공업용 거짓말은 3% 정도의 사실로 구성된 액체 유형의 말로 발음되는 휘발성이 매우 높아 늘 공업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독성의 거짓말에 감염될 수 있어 대화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생산라인 B공장의 한 구석에서는 필리핀 앵무새를 사육장에 가둬두고 약간의 사실과 함께 거짓말을 읊게 하는데 이때 흘리는 침을 모아 90% 이상의 거짓 농도로 압축해 드럼통에 담는다. 이것은 악취가 매우 심하며 필리핀 앵무새들이 가끔 괴롭다고 이야기 하면 방독면을 부리에 씌우고 한동안 휴식을 취하게 한다.

생산된 거짓말 드럼통은 제약 회사에서 가공해 코미디언을 위한 알약으로 판매된다. 코미디언들은 대체로 긴장하면 진실을 내뱉기 마련이라 우환청심환처럼 해당 알약을 복용해 유려한 유머를 선사한다. 웃음이란 건 대체로 진실된 경우가 많다. 체내에서 거짓말을 해독하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토끼는 공장 뒤 편으로 가 담배를 태운다. 비가 내린다. 공장 내부는 안전처럼 침묵이 가장 중요함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토끼는 연기와 함께 말을 내뱉는다. 강물에 몸을 던져 쓴 편지는 어디로 흘러가나

코끼리의 경우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 코로 먹지요.

유서 깊은 노래가 코끼리에 대한 예언을 한다. 예언은 유예된 거짓말이라서 예언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거짓일지, 진실일지 모른다. 오늘도 코끼리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서 인간들은 코끼리코를 하고 빙빙 돈다. 한쪽 손으로 코를 잡고 다른 손으로 코끼리 코를 만든다. 회전하는 인간들의 어지러움은 마치 원심분리기처럼 거짓된 마음을 뽑아내는 장치와 같다.

코끼리는 고무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짓된 마음을 생산한다. 마음은 먹기에 달렸으므로 코끼리는 마음을 주면 코로 먹는다. 코로 먹은 마음은 엔돌핀을 생산하며 이 엔돌핀은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 코끼리의 조증은 거짓말의 증상이다.

코끼리는 마음에 취해 꽤 오래 일어나지 못한다. 육중한 몸을 코로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앓은 채로 비틀거린다. 그 시간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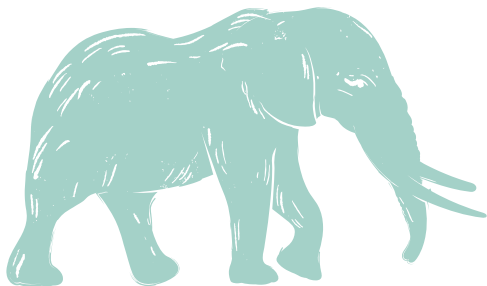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서 수출 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

과자를 주면 코로 먹지요.

반쯤은 맞는 말이라서

원숭이는 야유하며 바나나 껍질을 던진다.



원숭이의 경우

이 원숭이는 코끼리 띠다. 십이지신 중에 거짓말을 한 동물은 쥐라서 이 나라는 쥐를 잡지 않는다. 원숭이는 속이기 위해 거짓된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진심을 가질 수 있다. 진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원숭이는 유일하게 동물로 수출된다. 수출된 원숭이는 필요에 따라 TV에 등장하며 TV는 과도한 현실을 보여준다. 과도한 현실에 따라 사상이 구축되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혼란에 빠진 것은 쥐들이었다. 쥐들은 드럼통 속에서 서로를 잡아먹었다. 너무 많은 생존의 진심들이 가득해서 세상을 위협할 수 있었다.

원숭이는 이때 이 드럼통을 관리한다. 도시의 인간이 쥐를 관리하는 방법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거짓말이다. 코끼리 띠 인 것도, 그래서 원숭이로 하자는 것은 모두 코끼리 빼고 결정한 것이었다.

인간의 경우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 드럼통을 도시에 떨구기도 한다. 드럼통이 터지면 생존한 단 한 마리의 쥐가 배를 두드리며 노래한다. 강물에 몸을 던져 쓴 편지는 어디로 흘러가나,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 코로 먹지요. 어린이들이 이를 따라 부른다. 공장에서 탈출한 앵무새가 창공을 날며 이를 따라 부른다. 독재자가 예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강물에 몸을 던져 쓴 편지를 읽은 것이다. 역사는 흐른다.

작가의 말

역사의 사생활. 더욱 선명해질 것은 없었다. 동물원에서 동물이 되는 습관이 있다. 치밀하게 변하진 못해도, 내가 쌓아올린 것들을 배신하면서 동물이 될 수 있었다. 빛과 빛 사이에 내가 놓여 있고 아무도 날 찾지 않았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일 뿐인데 굳이, 저기 먼 말들의 기원이 될 필요는 없었다. 초라했으나 생존했으면 매번 갇히는 독재자는 나의 보함을 몰랐다. 원래, 그런 것이라 알고 있다.

취업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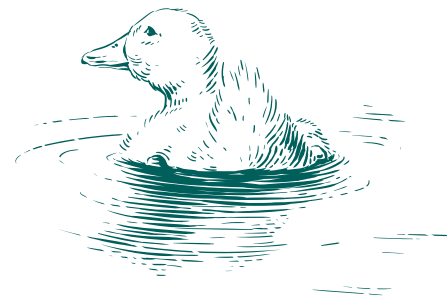
초음파를 쏘는 돌고래는 지금 초음파실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사주를 써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주풀이도 틀렸습니다. 후... 선생님, 옛날에 지방간으로 유명하셨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선생님은 그냥 일반적인 오리일뿐이라고요. 예전에 자기 간이 최상급 푸아그라였던 아니든, 기업이 원하는 밥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나중에 제사상에서 유명해지시려면 계속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자식들 주둥이에 뭐라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폭탄주 드셔가며 지방간을 늘려가는 게 요즘 취업 트렌드는 아니라고요. 그게 한 시절의 자랑이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간은 앞으로 친구를 낳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적어도 유사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돌고래도 결국 병원의 작은 수조관에서 초음파를 쏘며 내장 검사에 일조하고 있어요. 기계가 아니라 나뼌의 생체적 장점이라는 거죠. 거미는 미성 공장에서 수선 시다를 하면서 돈 좀 만지고 있고요. 아아, 그렇죠. 사실 침팬지로 태어나지 않으면 요즘엔 취업이 힘든 거, 알죠. 그럼 전생에 좀 덕을 쌓던가 해야 하는데 동물이신 건 어쨌든 전생을 잘 못 사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생이 입시 처럼 변하고 나서부터는 지금이라도 인간을 도우며 덕을 쌓아야 다음 생이든 자식이든 잘 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려고 양에게 고개 숙여가면서 재산을 배우고 있어요. 호랑이도 사실 게으름과 나태함을 타고난 게 아니거든요. 이름을 남기려니 양이 되어야 하는 상황. 억울한 거 다 참고 살아요. 그 자존심 강한 호랑이도요.

그래도 선생님은 좀 다행이죠. 오리털 파카 공장은 늘 인원, 아니 동물원, 아니 하여튼 일할 동물이 부족하거든요. 고운 털을 뽑아내려면 좋은 사료를 먹어야 해서 직원 복지도 좋다고 소문이 났고요. 뜨거운 온탕에서 털 뽑아내는 게 고역이라지만 뭐, 온탕에 있으면 혈액 순환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겨울에 맨살로 다니지 말라고 자기 털로 만든 오리털 파카를 지급해 주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침팬지처럼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손이 있어야 하는데 날개가 있어버리면, 심지어 나시지도 못하잖아요. 나셨으면 매처럼 비행장에서 바람에 취한 작은 새들 버드 스트라이크 안 나게 통제원으로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험악하게 생기시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자, 이제 그냥 제가 추천하는 곳으로 지원하세요.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려면 어찌겠습니까. 지금이 앞으로의 전생이 되는 시대인데, 잘 하셔야죠. 취업 전선이지 않습니까.



작가의 말

지금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나는 대체로 보험으로부터 자격박탈 당했다. 우는 중에 받는 전화의 대부분이 미납 안내 전화였다. 취직한 적이 없는데 고용보험이 밀려 있다고 했다.

비 공장

1.

비를 수출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젖은 동물들이 조금 상처받았다.

2.

동물들에겐 우월한 방어기제가 필요했다. 양이 말했다. 이습우화라고 알아? 역사적으로 인간은 우리를 그렇게 모욕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닐까.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데도, 우린 괜찮지 않니? 건기에 모여 우기로 사라지는 일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월한,

3.

은은 멀리서 무리 짓는 동물들을 본다. 물방울들 속의 금붕어들과 같구나. 그 금붕어가 자신이 물방울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는, 쓸 때 없는 고민을 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했다. 옆에 있던 은의 친구 양은 울면 되잖아. 울면, 눈물은 그때 금붕어의 유일한 건축자재가 아니겠어? 라고 말했다. 울음으로 커지는 세상. 눈물에 비례해 커지는 세상을 은은 생각했다. 생각보다 순한 양은 잘 서러워지고, 잘 운다.

은은 집으로 돌아와 금붕어에게 밥을 준다. 눈물에 비해 어항이 너무 크다는 생각. 저 금붕어들은 생존에 대해 굉장히 게으른 것이 아닐까. 먹이사슬도 없는 곳에서 내가 주는 것에 만족하는 게으른, 아주 게으른 슬픔쟁이들.

은은 먹이를 주지 않는다. 금붕어는 이제 다른 금붕어를 먹는다. 은은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금붕어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먹고 그 새끼를 먹어서,

4.

동물들은 밤구름에 비친 도시의 빛들을 멍하니 보고 있다. 옛날에, 옛날에는 불꽃놀이를 했었다. 인간이. 인간만의 놀이로서. 우리도 그런 놀이를 가지면 좋겠어. 양은 말했다. 양의 친구 양은 형광 침을 하늘로 뿜었다. 끈적한 형광침이 밤구름에 붙었고 밤구름은 도시 쪽으로 흘렀다.

떨어지면 좋겠다. 천사들이 가끔 우리에게 들려서 털을 수거해갈 때, 우리는 왜 깃털과 교환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교환가치를 아무도 만들지 못했잖니. 양이 나무랐고 양의 친구 양은 서러워졌다. 울기 시작했고, 눈물 속에 눈물보다 작은 금붕어가 슬그머니 수면 위로 빠끔거렸다.

배고파.

5.

은은 어제 비공장 공장장에게 혼났다. 은이 수거한 구름에서 알 수 없는 형광 물질이 발견되어 타국이 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장은 큰 손해를 봤고, 나라의 자랑거리였던 비수출은 금지되었다. 은은 실직 당했다. 은은 울지 않았다. 세상이 이보다 더 커지면 더 문제니까.

어항엔 한 쌍의 금붕어만 남았다. 물은 탁했다. 호흡하면서 동족의 육질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물을 빨아들이면서 아가미는, 어떻게 고기찌꺼기를 걸러낼까. 은은 공장에 형광 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 장치가 있었다면, 자신은 실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

6.

은은 수조에 얼굴을 넣고 울었다. 은이 울면 울수록 물은 맑아졌다.
 수출되지 못한 비는 전국에 쏟아져 내렸다. 그건 올기와 우기 사이의 어떤 절기였다.
 동물들은 자주 비에 젖었지만 형광색의 그 어떤 것도 국내엔 내리지 않았다.
 올기와 우기가 끝나자 다시 비 수출은 계속될 수 있었다. 모두 은이 한참을 울어둔 덕분
 이나 은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양과 동물들은 우월한 무언가를 가진 것 같았다. 우월하고 우월한



작가의 말

결국엔 은을 만나지 못했다. 양털을 다 불태우자 잿더미에서 양들이 쏟아져 나왔다. 비는 여전히 수출 중인데, 어떤 구름은 수출이 불가했다. 아니, “항해를 할 수 없게 만들면 비를 보내드릴 수가 없죠,” “그거야 그쪽 국가 사정이고.”

맨발의 햄스터

내가 민달팽이라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작은 집에 발을 넣는 것 같다. 달팽이 같은 신발이 집 같은 나를 이고 간다. 내 안에 세든 것들은 빈방 밖에 없는데 발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내는 월세 때문 일거다. 전세 사기 같은 무서운 거는 나만 상상하는 거고 반전세 같이 현실적인 건 나보다 강한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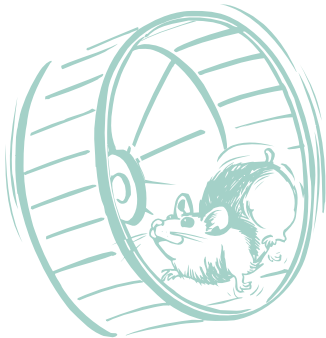
적어도 나의 부모는 내가 키우는 햄스터에게 집값을 요청하진 않을 것이다. 나 역시도 햄스터에게 씨를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동물보험 같은 게 아직 없다는 건 생활사에 있어서 다행일지도 모른다. 가끔 친구가 집들이로 사오는 해바라기 씨 같은 게 좋았다. 두루마리 휴지는 책장에 너무 많았다. 두루마리 휴지는 돌돌 말린 성경종이 같은 것이었다. 떨어트리면 많은 것들이 풀려나왔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날이면 웬지 아프지 말아야 할 것 같았다. 밀린 보험료가 있었고 그걸 내기 전까지 보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 기필코 아프지 않기로 한 것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였다. 보험료를 낼 때마다 자꾸 기침이 났다. 나는 괜찮다고 헛손질을 하면서 신발 안에서 비틀거렸다. 해바라기 씨가 밟혀서 불편했지만 나는 해바라기처럼 크게 자라지 않아서 좋았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해바라기 씨를 툭툭 손 위에 떨어냈다. 햄스터가 투명 케이지에서 쿵쿵거렸다. 이것이 내 노동의 결과라면 충분했다. 보험료는 월마다 밀리고 밀려서 내 앞에 사라지고 없었다. 효력이 없는 미래의 두려움 같은 것이 성공의 장애물이라고, 보험 설계사가 얘기했던 것 같다.

쌀통에 쌀이 없었다. 부모는 햄스터보단 나를 의심했다. 쌀통은 햄스터보다 크니까. 햄스터가 쌀통보다 컸다면 의심을 피해갔을 것이다. 들킨 것이 뭔가 서러웠다. 앞으로 라면에 밥을 말아먹지 않기로 했다. 월급 차압보단 나왔던 것 같다. 나는 신발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족저근막염에 걸렸다.

발바닥이 아팠다. 당분간 밑창이 딱딱한 신발은 신지 말고 최대한 적게 걸으며 체중을 줄이라고 했다. 나는 볼에서 쌀알들을 뱉어내 체중을 줄였고 사족보행으로 최대한 적게 걸었다. 신발엔 나무톱밥을 깔았다. 햄스터는 귀여우니까 모든 것이 용서됐고 나는 아프다는 이유로 월세를 면제받았다. 더 나아가 사족보행을 포기하면 민달팽이가 되는 거고 민달팽이는 문밖에서 소금 면박을 받으면 죽는 거다. 나는 가만히 누워 말랑해지고 부모는 돌아와 문밖으로 소금을 뿌렸다. 재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방문 밖을 나설 수 없었다. 바닥에 해바라기 씨 같은 소금이 가득했다. 소금기둥이 해를 바라보며 크게 자랄 것만 같았다. 햄스터에게 독립을 바라는 건 동물 보험이 생긴 다음일 것이다.



작가의 말

한편 나는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햄스터이기도 한데, 주둥이에 양껏 넣은 욕심이 말로 터져 나올 때마다 카드를 긁었다. 머리에 스치우는 영수증이 생각났다. 소금을 얻어맞고 보니 해바라기 씨에 간이 잘 된 것 같다. 자주 뿌려달라고 할 예정이다.

Man to Man

건강보험이 되지 않더라.

형의 병원비 문제로 돈을 빌리러 온 친구가 말했다. 발효 중인 빵처럼 부푸는 근린공원을 나는 친구와 함께 걸었다. 건포도처럼 박힌 새들이 날아가지 않는다. 부풀어 오름에 밀려 나가는 것처럼 새들이 견고 있다. 형이 아픈 건 슬픈 일이지. 치료 방법은 뭘데. 퇴화된 날개 뼈에 성장호르몬 주사를 놓는 건데, 아무래도 형은 인간의 반대편이 되겠지. 살든 죽든, 결국 형도 인간이 아니어서 건강보험 수령은 어려울 것 같아. 너희 형은 참 성실했는데, 왜 하필 형에게...

네 몸이라도 잘 챙겨.

나는 친구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 그래, 최근에 몸의 면역체계가 다 무너져서 소독약을 마셨는데,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았어. 그래 잘 챙겨 먹고.

우리는 말이 없다가

형의 병원비가 얼마인데.

모르지, 아픈 만큼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 끔찍하네. 끔찍하지. 지금 아픔은 얼마고 내일의 아픔은 얼마고,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르겠지. 형은 더 아플 거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형이 몸을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마. 그래도 형 이름에 대한 저작권료는 착실히 받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더라. 왜? 누군가 명의도용을 한 모양이야. 싼값에 이리저리 좀 썼나 봐 형이. 그렇구나.

우리는 말을 잃었다가

형수님은 괜찮으셔? 간신히. 잘 챙겨 먹으라 그래. 그래. 고맙다.

차마 돈 얘기는 더 못하는 친구에게 지갑 안에 있는 돈뭉치를 손에 쥐어 주었다. 야야, 그러지 마라. 괜찮아. 일단 이거라도 받아. 계좌 알려줘, 형편 되는 데로 보낼게.

...그래. 고맙다.

고맙긴.

우리는 근린공원을 벗어났다.

며칠 뒤 친구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란히 누워있는 두 형제를 보며 아내들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형수, 그러다 몸 사라져요. 그만 울어. 힘내야지.

나는 소독약 한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괜찮냐.

친구는 두 눈을 껌뻑이며

보험이 어렵단다.

다른 보험도 어렵다니?

응.

우리는 말이 없다가

갈게.

그래.

한편으로, 열대성 기후에 맞는 치즈맨인 내가 녹아가는 초코맨이었던 친구에게 할 말은 없었다. 냉장고 사용료는 점점 높아만 간다고, 아이들은 당수치가 높아만 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밝았던 친구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초코맨인 친구에게 남은 것은 당뇨뿐이었다.



작가의 말

혼수상태에서 수술받은 녀석이 일어나자마자 한 얘기는 “병원비 얼마나 나왔니”였다. “일단 건강부터……”, “…… 많이 나왔구나.”, “…… 그런 것 같아.”, “…… 돈 좀 더 빌릴 수 있을까.”, “적금을 깨야 해.”, “난 깨져버렸는데.”,

대화를 듣던 아내들이 울기 시작했다. 소독약을 먹자 못된 마음이 소독되는 것 같았다. 나는 끝내 울지 않았다.

허그 프리

다다와 나는 퍼즐로 만든 집에서 살았다.

다다는 마네킹협회에서 폐기된 마네킹을 소각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영혼까지 태우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일이었다. 다다는 저녁마다 일당으로 퍼즐 몇 조각을 받아 빈 부분을 채워 넣었다. 퍼즐끼리 맞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퍼즐을 받으러 소각장에 가야 했다. 수년이 흘렀지만 맞지 않은 빈틈은 늘 생겨났다. 벽을 세우면 또 다른 벽이 필요했다. 빈틈 사이로 바람이 들었다. 우리가 너무 큰 집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해서 집의 크기도 줄여보았지만 빈틈은 계속 생겨났다.

어떤 대화는 영원할 것 같은데 조각이 맞지 않아 잊어버린 말이 있었어.
다다는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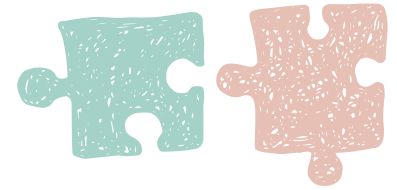
다다가 집을 떠나면 나는 남은 퍼즐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추며 어떻게 빈틈을 채울 수 있을지 하루 종일 고민했다. 창고엔 이렇게 많은 퍼즐이 있는데, 다다는 계속 퍼즐을 가져오고 퍼즐은 늘어나고 그럼 경우의 수가 자꾸 늘어나서 나는 계속 고민할 거고, 고민만하는 것보단 일하는 게 나으니까, 우리는 계속...

새벽이면 잠든 다다의 꿈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주 빈방을 돌아다녔다. 영혼을 다 태우지 못하면 남은 것들이 다다를 따라와 꿈속에 거주하기도 했다. 그쯤,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때론 꿈에도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다다는 매일 같이 검게 그을려진 얼굴로 집에 돌아와 나를 보았다. 나는 그 눈동자에 맺힌 열기구 같았다. 어느 날은 다다야, 마네킹을 태우면 연기는 뭐야? 하며 물었다. 다다는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다다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다다는 혹시나 내가 다칠까 웅크렸다. 그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다를 빈 부분에 맞대보았다.

딱 맞았을 것 같았다.

나는 순간 놀라 다다를 흔들어 펼쳤다.
미안해. 내가, 내가



그렇게 한참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지만, 자꾸 서로의 빈틈이 잡혔다. 다다의 꿈 밖으로 나온 유령들은 웅크려있었다. 유령들이 우리의 빈 부분을 채울 순 없겠지만, 이렇게 꿈 밖으로 나온 이유가 퍼즐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며칠 동안 다다는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퍼즐에 대해 고민했다. 왜 맞지 않는지 전체적인 그림도 그려보았다. 그럼에도 계속 어긋나있었다. 연필 한 자루를 다 사용할 정도로 이리저리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쩌면 저 빈틈이야 말로 우리가 찾던 퍼즐이 아닐까, 그런 말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바람이 드는 걸. 저기에 빛이 쏟아져도 따듯하지 않을 거야. 어제 네가 내가 잘 자기 바라서 저 빈틈에 몸을 우겨넣은 것처럼.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다다는 내 귀에 속삭이며 말했고
다다는 다시 소각장으로 향했다.

나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았다.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다다를 가두어도 보았다.

누군가는 그 풍경이 퍼즐의 한 조각이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빈 부분에 맞는 퍼즐은 아니었을 것 같았다.

작가의 말

다다는 공장에서 절반이 타버린 영혼을 데려왔다. “뭐야”, “마네킹에서 타고 남은 거야.” 그리곤 다다는 우리 집의 빈 퍼즐에 그 영혼을 맞춰보았다. 딱 맞았다.

별내

별내의 탄생은 이렇다. 도쿄의 동전들을 쏘는 바람에 구역이 형성되었다. 외화가 만들어낸 치외법권의 지역이었다. 별내엔 서울에서 쫓겨난 이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각국의 동전을 쏘으며 별내를 확장해갔다. 별내는 별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태명을 가졌지만, 떨어지는 것은 동전뿐이었다. 별내엔 청학리와 용암리가 있다. 청학은 푸른 학이라는 뜻을 가졌다. 별내에선 주로 동전을 수거해오는 지역 동물이다. 용암엔 아무런 뜻이 없다. 별내 옆엔 별내면이 있다. 부속 섬은 아니나, 그렇게 별내가 외롭게 된 건 경계선 때문도 아니다. 외국산 동전이 많아졌고, 환율로 인하여 땅값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였다. 센트는 폭등했고, 엔화는 폭감했다.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동네가 별내였다. 이주민들은 고국의 동전들을 바닥에 뿌렸다. 별내는 점점 커져서, 구리도 잡아먹고 서울의 일부도 잡아먹었다. 자치위원회는 동전 투기를 금지했다. 이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넓어졌다는 이유로 동전 투기를 금한 것은 너무하다고 항의했다. 동전에 새겨진 위인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동장은 말했지만, 500원짜리 학은 청학의 조상이라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별내면이었다. 행정구역이 넓어진 별내는 ‘동’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토착부터 가난한 별내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네 이름을 앗아갔다고 항의했다. 별내동 이주민들은 꼬우면 너희들도 동전을 던지라했다. 별내 면장과 별내 동장이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했다. 별내면 주민들은 몰래 별내동의 동전을 수거해 한국은행에 반납하기 시작했다. 별내는 작아지기 시작했으며 외화보유율은 높아지기 시작했다. 점차 별내를 잃기 시작한 이주민들은 동전을 저금통에 넣어두기 시작했다. 언젠가 투기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동전은 줄어만 갔고, 격차는 없어지고 별내동과 별내면의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한 두 동전이 행정구역을 갈랐다. 이제 별내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주민들은 느꼈다. 한때 서울을 점령했던 별내가 무너지다니, 이주민들은 한탄했지만 도저히 별내면 주민들의 수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청학의 노력에도 매번 동전을 잃어갔다. 별내면 학생과 별내동 학생이 모이는 청학교에서는 매번 판치기가 벌어졌다. 등이 휘어가는 부모를 위해 별내 학생들은 동전을 벌어들였지만 부모는 또 동전을 잃어버리고, 학생들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면 동 구분없이 서로를 사랑했고 부모를 닮아가지 않았으며 모두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흩어진 친구들이 청학리에 모이자고 했지만, 노원에서 보기로 했다. 별내가 없다고, 한 친구가 말했다.

작가의 말

먼 훗날 이 사건은 설화로 남아 버렸다. ‘별내 살풀이’라는 명칭으로 종종 사람들이 곳을 벌였다. 위로 받은 영혼은 하나도 없었는데 구경꾼들은 위로를 받았다.

동거

네 목소리는 낯았다. 결국엔 그랬다.
김밥이 단정해 기분이 나쁘고
월세를 내지 못한 나에게 너는 이천 원을 더 준다.
김밥이 맛이 있어서 기분이 더 나쁘고
우리는 꽃구경을 가자고 했다.
어제는 밤이 깊었다.
너는 나에게 웃기를 강요하고
나는 잠시 어떤 반찬을 더 만들어야 할지 생각했고
그때 너는 붉어진 나의 귀를 종이접기하듯이 만졌다.
발바닥이 큰 내가 발이 작은 너의 뒤통수를 봤고
세상을 살다보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너에게 심리 보험 같은 걸 들어주고 싶었다가
근데, 가해자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아무 보험 하나 들지 못했다는 건
사실 돈이 없다는 핑계보다 적절했고
다만, 더 밝은 것은 없어?
꽃구경 내내 꽃을 꺾었다.
다른 사람도 봐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꽃이 많은데……

어제, 우리는 방에서 순이 여사 팔순 잔치가 적힌 수건을 접었다.
거실의 붉은귀거북이 멍하니 목을 접어 넣고 멍하니 있었을 거고
그냥,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잔치에 가지 않았겠지만
누군가 거기에 갔겠지. 하고 하는
허탈한 믿음과
나는 폐장된 동물원의 동물들을 처리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었다.
모두 병들고 낡았고 아팠다.
안락사와 다른 동물원으로 가야하는 선택 중
동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동거가 그런 것 같아.
방금 꺾은 꽃이 시들고
넌 퇴근이 늦고
나는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흰 꽃들을 오래 보다가 눈이 멀 것 같아,
네 어두운 얼굴을 보았고
밤이 깊었다. 가자.
갈 곳은 폐장된 방.



우리의 이불이 있고 속옷이 있는
 덜 마른 양말과
 덜 마른 세수가 있는
 안개가 자욱한 집으로 가서
 서로를 매만지며 잃어버리다가
 왜 안 오냐는 전화를 하고
 늦는다는 말을 하고
 안전한 잠을 자다 일어나
 언제 대단해질지 걱정했던 우리는
 어항 속 붉은귀거북에게 줄 것이 없을 때마다
 거북 몸통에 목줄을 달고
 서울 내천에 잠시 풀어두기도 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서로의 붉은귀거북이 아니지만
 왜 손을 잡으면 자꾸 목이 답답할까.
 어제 먹다 남은 김밥을 몇 개 집어먹고서야
 쉰 것을 알았다. 목이 막히고
 주말이었는데
 우린 왜 꽃을 꺾었지.
 우리는 왜 재를 집에 데려온 걸까.
 흠집처럼 멍이 들면
 멍처럼 사라져줄까? 라고 힘겹게 웃던
 너의 이름을 내가 새롭게 지어주고 싶다가도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무서워져서 가끔 화장실에서 오래 씻다가
 방에 검은 꽃잎들이 쌓이는 밤

우리가 같은 이불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던 눈과 시선에서
 물고기 부레 같은 꽃이 부풀어 피던 밤
 우리, 그때 김밥을 누가 싸왔더라.
 어렸을 적, 꽃을 전에 부쳐 먹던 관습이 있었다던 너의
 오래된 기억으로 빈틈을 메우기를
 간절히,
 갈비뼈 틈들에서 두근거리는
 첫 마음과
 마지막 마음을 찾아냈을 때
 아침이야. 출근한 너는
 간에 좋은 영양제를 먹었을 거고
 이제는 새롭게 어항 물을 갈아야 할 때
 월세 낼 돈도 없냐는 너의 화에 나의 귀는 붉어지고
 붉은귀거북은 이제 자유방생 동물이 됐어.
 네가 필요해서 주워왔던 나는
 중랑천에서 목을 내밀고 먼 달을 보고
 아무도 방생하지 않았지만
 네가 중랑천을 돌아다니며
 내 새로운 이름을 자꾸 부르는데

작가의 말

유해종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다. 종종 청년적금 같은 제도로 구제받긴 했으나
 생각보다 국가는 더 많은 걸 요구하기도 했다. 월세에 밀려 쫓겨 나간 붉은귀거북이들이 모여 사는 촌이
 생겼다. 거기엔 물풀과 물이끼가 많았다.

돌아와요, 싯다르타

아빠들은 양말이 당하고 아버지는 돌아와 IMF를 말하시고, 그건 거대한 잉어 같았지. 낚시줄로 구할 게 아니었어. 아버지. 그러나 눈동자에 생긴 검은 피멍으로 세상을 보는 아픈 눈 하나가 아버지를 멍하니 보고 있어요. 시계추처럼 흐르던 새장의 빈 알들은 보셨다면 우린 무정란의 실패사를 함께 한 걸까요? 실직한 아버지 망망대해로 나아가 달리를 벌어들이시겠다고, 옆구리 큰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얼어붙은 파도 위에 앉아 치사량의 휘파람을 부시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붉은 동백꽃 향에 취해 오천 원 권 색의 노을을 저에게 보여주셨지요. 이제 물가는 매년 강남 물난리처럼 오르고, 그때 왜 아버지는 그 땅을 사지 않으셨을까, 나름의 한탄을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유명 공장에 들어가 직접 신용불량의 유명이 되시기도 하였습니다. 서투른 기계적 몸짓으로 찍어내던 불량 유명들이 한가득 빌딩 옥상에서 유독한 빛을 쬔 때, 아버지, 그때의 낚시줄은 혹시 불량이 아니었을까요. 아아, 유명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저의 부처귀를 끌어당기시며, 넌 아직 낚일 운명이 아니야, 하시며 보이스피싱하시던, 아버지. 싯다르타는 왕족이었다고 해요. 나는 불후의 왕족, 가문에서 태어난 세상 물정 모르는 똥강아지. 그 똥강아지는 커서 아버지를 몰이하고요. 아버지는 누추한 지갑에서 치킨 쿠폰 열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가 평생 모셔야 하는 네모입니까? 아버지는 쿠폰을 흔드시며, 넌 누구니? 아, 싯다르타. 전 이렇게 치킨집에 파문을 당해 부처가 되는군요. 아버지는 마그네틱이 고장난 카드로 저의 주마등을 굵으시며 고장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서사시! 아아, 여기가 대한민국, 이야. 외노자들의 슬픔을 우려먹는 방식으로. 경희극으로 불리는 그 잉어의 한강살이를 아버지는 겪으셨습니다. 아버지. 대출이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윤회 중입니다. 아메리카노는 반미주의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는 반미주의를 386세대들은 겪었다지만, 저는 이 시대의 어떠한 세대주도 부여받지 못한 채 집 한 채도 없이 삽니다그러, 그것이 부처의 길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저는 반미주의의 코오피 향을 느끼며 코스피가 오르길 기대하였지만, 아아,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그 망망대해서 달리를 구해오셨다면! 아아, 그때 한강의 잉어를 꼭 고아 먹었다면 달달한 싸구려 자판기 커피에 농축된 신용불량의 사람들을 낚아낼 수 있었을까요? 서울의 저 붉은 십자선들을 보며 청학리로 쫓겨난 우리가 왜 절밥을 먹으며 극락왕생하려 했을까요. 새장에 넣은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야 가면 그 깨진 빈 알들에 갇들어 살 우리 영혼의 전셋값은 얼마가 될까요 아버지!



작가의 말

아빠, 이제 저는 다 컸습니다. 다 컸다고 하여 물론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TV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데 아버지가 보낸 수신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무아비타불이요 공중시색이며 사실 무아지경입니다. 내 통장 애깁니다.

제26회 수주문학상 수상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심사평

제26회 수주문학상 예심을 거쳐 최종 심의에 오른 20인의 작품들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시적 내공을 갖고 있어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강산에」를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들은 의견을 함께 하였다. 무엇보다 이 작품을 주목하도록 한 것은 기성 시단의 작품들과 다른, 응모자가 아니면 감히 누구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미적 도발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동물(토끼, 코끼리, 원숭이)의 시선을 통해 지금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온통 거짓(위선과 위악)이 난무하며, 심지어 거짓에 아주 둔감해버린, 그래서 거짓 없는 세상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비쳐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한 우화적 풍자를 산문시의 형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거짓말이 양산되는 것도 모자라 거짓된 마음을 생산하고, 이 거짓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진심을 가진 사랑을 할 줄 알지만, 도리어 어찌된 영문인지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 시의 마지막 행 “역사는 흐른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풍자적 진실이 섬뜩한 비수 그 자체다. 지금여기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자아내는 시인의 풍자적 진실에 어떤 웃음을 지어야 할까. 우리시의 음역대를 넓혀준 시인의 또 다른 활력과 도발을 기대해본다.

심사위원 **고명철** | 문학평론가

제26회 수주문학상에는 440명이 참여해 3,508편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해를 더할수록 수주문학상에 대한 높은 참여 열기가 이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2024년은 수주 변영로 선생의 대표작인 『조선의 마음』(평문관 1924)이 출간된 지 100주년을 맞는다. 『조선의 마음』에는 수주 변영로 선생의 대표작인 「그때가 언제나 읊니까」, 「논개」, 「봄비」, 「생시에 못 뵈을 님을」 등의 시와 여러 산문이 수록되었다. 수주문학관에서는 『조선의 마음』 복간을 비롯해 <수주 변영로와 그의 시대> 전시와 <수주 변영로 서거 63주기 필사 응모작>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예심을 거쳐 본심 대상이 된 작품은 스무 편이었다. 이 가운데 최종심 대상이 된 작품은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와 「날씨 : 맑음」이었다. 하지만 김난수의 경우 삶에서 느끼는 신산고초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루고자 한 점은 좋았으나, 유구한 서정시의 형식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동들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형식미학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아쉬웠다. 이 점에서 유현성은 서정시의 형식미학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 인간 문제를 토끼, 코끼리, 원숭이 등 비인간 존재(동물)의 관점에서 보려 했고, 산다는 것의 문제를 우화적이지도 우화일 수 없는 ‘이야기’ 형식의 발견을 통해 풀어내고자 한 점이 눈에 띄었다. 특히 당선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는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거치며 인간중심주의라는 오래된 중력장에서 벗어나 다른 시선으로 시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시인의 음역대가 매우 넓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별내」 같은 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서사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등 일정한 ‘이야기성’을 획득함으로써 자폐적 자의식에서 벗어났다는 점 또한 큰 신뢰를 보내기에 충분했다. 시의 형식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면서 무엇이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형식미학 인지를 꾸준히 고민하는 수상자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심사위원 **고영직** | 문학평론가

응모작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우수한 기량을 갖춘 작품들이 많았고, 여러 개인적·사회적 아픔이 형상화되었다. 다만 아픔을 섬세하게 보듬는 점은 분명 좋은 시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무겁고 엄숙하게 그리려는 태도는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더러 감정의 과장이 곧 시적 깊이를 획득하는 길이라 오인하는 것도 같았다. 시를 조탁하는 기술적 유려함과 별개로, 가난이나 죽음과 같은 익숙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내용적 전형성을 벗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본심에서 최종으로 논한 시는 「날씨 : 맑음」의 6편과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 강산에」의 8편이었다. 「날씨 : 맑음」의 6편은 자연스러운 어법과 활달한 감각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응모작의 수준이 다소 고르지 못하다는 인상이 있었다. 몇몇 작품의 경우 사유를 조금 더 진척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 강산에」의 8편은 편편의 완성도 면에서 우선 신뢰할 수 있었다. 오랜 숙련을 짐작케 했다. 무엇보다 우화적인 수법으로 지금-여기의 세태를 빗진하게 그려내는 솜씨가 훌륭했다. 깊이 있는 사유와 충만한 에너지로 인해 긴 호흡의 시임에도 지루한 감이 없었다. 토론 끝에 심사자들은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 강산에」를 당선작으로 정했다. 이 작품이 내실 있는 한 시인의 시작을 근거하는 토대가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성심으로 쓴 작품을 보내온 다른 모든 응모자 분들께도 응원을 전하고 싶다.

심사위원 박소란 | 시인

계급장(등단 여부) 떼고 이름도 떼고, 그것도 미발표 작품들로,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문학 장르 종사자들의 다양한 시적 취향을 가진 심사위원 5명의 동의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차를 거쳐 올라온 2차 심사 대상자가 20분이었다. 전체적으로 시적 성취는 물론 다채로운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심사위원 모두 이구동성으로 수주문학상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면서, 20분의 작품들을 다시 읽으며 3차 심사 대상자를 골랐다. 마지막으로 3분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소풍」의 8편은 매 편의 시를 빚어내는 솜

씨가 군더더기 없이 날렵했다. 그러나 몇 편의 작품에서 기시감이 느껴졌다. 「날씨 : 맑음」의 5편도 시적인 제어와 방임을 균형 있게 안배하면서 새로운 시선을 놓지 않는 수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 강산에」의 8편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시인만의 분방한 개성, 유장한 호흡과 분출하는 에너지, 긴 시임에도 시의 밀도를 놓치지 않은 시적 긴장, 경계가 없어 보이는 시의 스케일을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시적인 여운 혹은 잔상이 오래 남는다는 점, 시인의 다음 시가 궁금하다는 점이 큰 미덕이라 생각한다. 이 신에 시인의 가능성이 더욱 궁금하다.

심사위원 정끝별 | 시인

제26회 수주문학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심사에서 선정한 20명의 작품은 각기 독특한 질감의 언어들로 넉넉하게 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색깔이 있는 목소리지만 힘에 부치거나, 단단하게 근육이 붙은 소리지만 음역대가 불안정하거나, 귀에 익숙하여 다른 소리에 묻히는 작품을 제외한 후, 「소풍」의 8편,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 강산에」의 8편, 「날씨 : 맑음」의 6편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각기 개성이 강한 3명 중 어느 작품에 마음을 두거나 마음을 빼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심사자들은 수주문학상 수상이 더 오래 시를 품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의견 끝에 조금은 장황했지만 세상의 측면을 자신만의 보폭으로 디디고자 싱싱한 걸음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 강산에」에 손을 내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2명을 포함하여 「상자와 사람」의 7편, 「손 없는 날」의 7편, 「킹스베리, 킹스베리」의 6편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들 모두 어디에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뿜아낼 것으로 생각하며, 축하와 아쉬움을 전합니다.

심사위원 최은묵 | 시인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on p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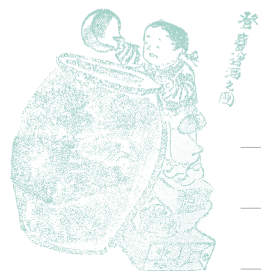


《신천지》 1953년 11월호
변영로, 〈나의 자평〉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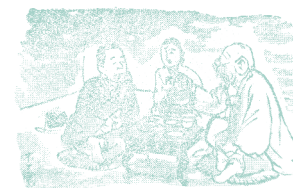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on page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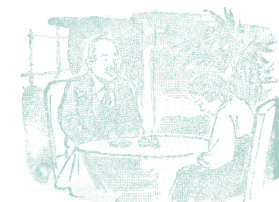
변영로 《명정사십년》, 1953
〈어린 신랑의 이 행색〉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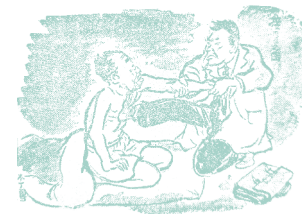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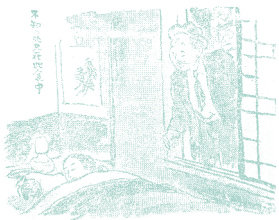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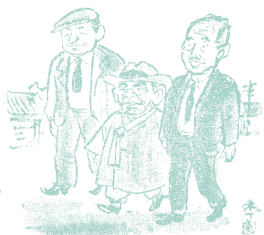
변영로, 《명정사십년》, 1953
〈등옹도주(登甕盜酒)〉 삽화



변영로, 《명정사십년》, 1953
〈효가대행호(孝可代行乎)?〉 삽화







수주문학관

수주문학관은 부천시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서, 한국 근대문학을 개척한 선구적 문필가 수주 변영로 시인의 문학정신과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문화공간이다. 2022년 7월 8일 부천시립수주도서관과 함께 개관한 수주문학관은 현재 수주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전시 및 관리하고 있다. 전시실은 <천재의 고향, 펜을 들다>, <민족의 울분, 기록하다>, <지조의 문인, 마음을 울리다>, <수주의 흔적, 정신을 이어받다>와 같이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랙티브 체험과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학관 3층에 있는 역사체험형 전시공간인 고강선사유적체험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시는 길



교통편 - 버스

606, 661, 20, 23, 50-1, 58-1, 70-2, 75, 77, 8
 '고강선사유적공원앞' 하차

이용안내

14411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8번길 77(고강동)

관람시간 9:30~18:00(입장마감 17:00)

휴관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문의사항 032-320-6433~5

제26회 수주문학상
수상자 시 해설집

신들의 동물원

발행처	(재)부천문화재단
발행인	한병환
총괄	박종민
기획·운영	정보람
진행·홍보	이중찬
발행일	2024년 11월

* 본 책자에 실린 글은 부천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